



드뷔시 '첼로 소나타'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3번 D단조'
 차이콥스키 '피아노 트리오 A단조'

정경화 & 정명훈 & 지안 왕

거장들의 조합 '정트리오 콘서트'

26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50년 넘게 '예술가 남매'로 이름을 알려온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마에스트로 정명훈, 그리고 이들과 음악적으로 교류해 온 첼리스트 지안 왕까지, 관록의 세 음악가가 의기투합한 '트리오' 무대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윤영문·전당)이 기획한 포시즌3 공연의 일환이자 전당 재개관 시리즈 '정트리오 콘서트'가 오는 26일(오후 5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공연은 정경화·정명훈이 각각 75·70세를 기념해 11년 만에 한 무대에 오르는 데 의미가 있다. 이전 무대에서 두 사람이 협연자와 지휘자로 합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첼리스트 지안 왕의 선율까지 곁들여 트리오 공연을 선보인다는 계획. 드뷔시가 말년에 작곡한 실내악곡 '첼로 소나타'와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D단조', 피날레 변주와 섬세한 표현이 돋보이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A단조' 등을 감상

할 수 있다.

지휘자 정명훈은 뉴욕 매네스 음대와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수학했다. 1979년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보조지휘자로 음악계에 진입한 뒤 2년 만에 부지휘자를 역임했다.

이어 독일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와 파렌체 플로렌스 시립극장 수석객원지휘자,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 등 국제적인 커리어를 쌓아 왔다. 음악적 위업을 인정받아 이탈리아에서는 1988년 비평가들이 선정한 '프리미오 아비아티 상'과 이듬해 '아르투노 토스카니니 상'을 수상했고 프랑스 최고의 훈장 '레지옹 도뇌르' 및 '코망뒀르' 등을 받았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는 2015년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음악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줄리어드음악원 교수를 맡고 있다. 1967년 리벤트리트 콩쿠르 우승으로 데뷔한 후 비나드 하이팅크, 클라우디오 아바도, 게오르그 솔티 등이 이끄는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해 왔다.

그동안 총 33장의 정규 음반을 발표했으며 2017년에는 그라모폰 명예의 전당 바이올린 분야에 크라이슬러, 밀스타인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특히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안토니오 파파노로부터 "특별한 바이올린 사운드 속에 다른 연주자와 협업했던 모든 시간이 응축돼 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첼로 트리오로 활동했던 정명화 대신 이번에는 첼리스트 지안 왕이 무대에 오른다. 중국 출신인 지안 왕은 상하이 콘서바토리아에서 공부했으며 예일대 음대에 입학해 알도 파리소 교수(미국 예일대)를 사사했다. 또 뉴욕, 홍콩, 네덜란드 필하모닉 등과 협업했고 오귀스탱 뒤메이와 함께 작업한 곡을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에서 발매하는 등 다양한 디스코 그래피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첼리스트 중 최초로 독일 그라모폰(DG)과 전속계약한 아티스트라는 점은 관객들의 기대를 갖게 한다.

R석 15만 원, A석 9만 원, C석 5만 원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제99회 '광장음악회' 공연 장면.

<광주일보 DB>

꿈꾸는 예술 '광장 음악회' 열려요

19일 노대동 물빛근린공원

탁 트인 야외 광장에서 음악이 주는 즐거움에 매료되는 기회가 마련됐다.

공연예술단체 꿈꾸는예술(대표 정찬경)은 '제103회 광장 음악회'를 오는 19일(오후 7시) 남구 노대동 물빛근린공원에서 펼친다. 동요 메들리 '섬집 아기(이흥렬)'와 '기러기(박태준)', '고기잡이(윤규영)'와 같은 명가곡들이 레퍼토리에 있다.

이어 소프라노 김소희의 솔로 무대인 '꽃구름 속에(이흥렬)'와 소프라노 서혜원의 '한여인의 전설(정애련)', 박수연의 '별(이수

인)'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또 테너 신연석의 솔로 무대 '별은 빛나건만'과 고규남의 '아침의 노래', 바리톤 정찬경의 '박연폭포' 및 박성훈의 '나는 거리의 만물박사' 등을 감상할 수 있다.

한편 메조소프라노 김하늘의 '하바네라' 등과 칸소네 '오 솔레미오', '푸니쿨리 푸니쿨라' 등은 감상의 묘미. 꿈꾸는예술 단원들이 모두 무대에 올라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피아노 연주는 전남대 대학원 음악학과를 졸업한 김한나가 맡았다.

자세한 내용은 꿈꾸는예술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피아니스트가 들려주는 음악동화

18일 서구문화센터

음악동화를 들려주며 어른과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하는 연주회가 펼쳐진다.

T&T예술기획은 '피아니스트가 들려주는 음악동화' 공연을 오는 18일(오후 4시 30분) 서구문화센터 2층 공연장에서 연다. 2010년부터 음악동화 프로그램, 음악가의 편지 등 클래식 공연을 매년 기획·개최해 오고 있는 일환이다.

전래동화 '아기 돼지 삼 형제'와 러시아 작곡가 프코코피에프의 '피터와 늑대'를 감상할 수 있다. 또 '아기 돼지 삼 형제'와 수만의 피아노곡 '어린이 정경'과 '어린이를 위한 앨범' 등도 마련돼 있다.

'피터와 늑대'는 피아니스트 임인수와 듀엣



피아니스트 김명자

으로 준비했다. 임씨는 광주대 음악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에서 공부해 왔다.

이번 행사를 주도하는 피아니스트 김명자는 서울예고와 이화여대 음악대 졸업 후 오스트리아 빈 시립음악원에서 디플롬을 받았다.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악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으며 현재 광주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석 초대 진행.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다음 달 개막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작품 2663점 '역대 최대'

50여개국 777명 디자이너·작가 참여

오는 9월 7일 개막하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11월 7일까지)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전시 작품 수가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에 따르면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콘텐츠는 2663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제7회) 1288점, 2019년(제8회) 1113점, 2021년(제9회) 1039점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작품 수를 기록했던 2007년(제2회) 2007점을 웃돈다.

또한 50여개 국에서 LG전자, 르노코리아 등 189개 기업을 비롯해 스테파노 지오반노니, 무라타 치야키, 김현선, 이아남 등 777명의 국내외 디자이너와 작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4개 테마로 마련되는 본전시(비엔날레 전시관)에는 이탈리아, 일본 등 16개 국가의 디자이너 63명, 144개 기업이 126개 작품을 선보인다.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국제 포스터디자인 초대전(비엔날레전시관)'에는 26개국 355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한다.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알리는 현수막.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제공>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 열리는 특별전 '디자인네트웍스'에는 광주·전남지역 디자이너, 대학생 235명이 시각, 공예 등 다양한 디자인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생태미술프로젝트'를 테마로 100여 점을 전시한다.

광주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올해 10회 행사를 맞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각계에서 참여를 희망하

고 있다"면서 "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한 관심, 호응과 맞물려 프로그램과 작품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주관하는 광주디자인진흥원은 9월 5일 미디어테이에 이어 6일 오후 6시 개막식을 갖고 7일부터 일반 관람객 맞이에 들어간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행인학당, 22일부터 하반기 노자 강좌

양희석 명예교수 15차례 진행

양희석 전남대 명예교수가 2023년 하반기 행인학당(行人學堂) 노자 강좌를 연다.

전남대 중국인문연구소 주최, 행인학당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동구 동명동 카페 '프라임 픽'에서 '노자 도덕경' 가운데 '도경'(道經·1-37장)을 강독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 강좌와 상반기 '덕경'(德經·38-81장) 강좌는 동영상으로도 제작돼 유튜브 '행인학당 노자강좌'(https://www.youtube.com/@yanghoister)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하반기 노자 강좌는 오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15차례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 진행될 예정이다.



양희석 명예교수

참가비(간식·비·운영비)는 15만원이며, 교재 '노자 도덕경'(마로니에)은 강의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중국 희곡학회 회장과 중국 인문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동양학자 양희석 교수는 지난 2022년 정년 퇴임한 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자'와 '장자' 등을 강독하는 '행인학당 동양고전 강좌' 인문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별시공



창호(샷시)교체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